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을 위한 하악 전치부 부분교정의 임상적 접근

여수모아치과병원, BDPG
장정록

서론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 시, 단순 외상 외에도 하악 전치부의 crowding이나 정출로 인한 교합 간섭이 치아나 보철의 파절 및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악 전치부만 치료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하악 전치부의 간섭 해소가 임플란트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증례

45세 남성 환자에서 상악 전치부(#11)의 보철물 파절, 정출 및 동요(#21), 치아 상실(#22)이 있었으며, 하악 전치부의 정출 및 crowding이 동반되었다. 구치부 교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상악 전치의 문제는 하악 전치의 간섭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악 전치부에는 발치 및 최소침습 임플란트 식립, 하악 전치부에는 간단한 부분 교정을 통한 intrusion과 crowding을 시행하였다.

방법

Tube type 장치를 사용하고 012 NiTi wire를 활용하여, 복잡한 브라켓 시스템 없이도 단순하고 효과적인 부분 교정이 가능하였다. 치아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IPR(Interproximal Reduction)과, tube 부착 위치의 단차 조절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치부 위치를 조정하였다. 또한, tube 부착 및 wire 삽입 방법에 따라 심한 crowding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wire insertion이 가능하였다.

결론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 시, 하악 전치부의 간섭 해소를 위한 부분 교정은 임플란트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복잡한 교정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장치와 기본 원리를 활용하면 일반 개원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